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중간 선거]

- 미 중간선거 결과 관련해 공화당은 하원에서 217 의석을 얻어 과반수 의석인 218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205석.
- 반면에 공화당은 상원에서 뒤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대 공화당의 의석 수는 50석대 49석. 격전지 네바다주, 펜실베이니아주,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이 내리 이기고 현재 마지막 한석이 남겨있는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경제]

- WSJ: 10월 미 도매 물가 성장 둔화... 인플레이 부담 줄어
- Bloomberg: 11월 뉴욕 제조활동 상승... 그러나 향후 지수는 감소 예상
- WSJ: 연준 부의장 Brainard, "금리 인상세 곧 둔화될 수 있다"
- Bloomberg: 필라 연준 총재도, "향후 수개월간 연준 금리 속도 둔화"

[미 중간 선거]

- NYT: 중도층, 공화당 떠났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도매물가 기대보다 둔화로 기술주가 주식 끌어올려

[오일]

- CNBC: 미 10월 휘발유가 예상치 급등...인플레이 우려 커졌다

[부동산]

- WSJ: 맨해튼 호화 콘도 빨리 팔린다... 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

[중국 경제]

- Bloomberg: 어제 미중 정상 회담, 대화 자세는 괜찮아
- WSJ: 중국 소매판매 위축, 경제 타격 깊어
- Bloomberg: 중국, 올해 전기차 글로벌 판매의 60% 점유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엘런 美재무 "IRA, 우려 국가들에 긍정적인 측면도...설명하겠다"
- 연합뉴스: 블랙록 "연준, 금리 과도하게 올릴 것...증시 랠리 어렵다"
- 한경: 월마트, 3분기 매출 9% 급증, 월가 예상 웃돌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he Economist: 자동차 산업 혁신 경쟁...테슬라 따라잡을 수 있나
- WSJ: Meta, Lyft, Salesforce 등 미 테크 기업, 임대 사무실도 줄인다
- Bloomberg: 직원을 해고하는 최악의 방법
- CNN Business: Home Depot 소비자 지출은 늘었지만...인플레이 탓
- NYT: 아마존, 이번 주부터 1만 명 해고...역대 최대 규모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Supplier Price Increases Eased in October, Taking Pressure Off Inflation**10월 미 도매 물가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부담 줄어**

- 10월까지 2개월 연속 미 도매물가(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어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경제의 공급 상황을 가늠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10월 수치가 연간 비율로 8% 상승했다고 연방 노동부는 화요일 밝혔다. 9월의 8.4% 상승 보다 줄었고,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3월 11.7%보다 많이 꺾였다.
- 월간 비교로는 9월과 같은 0.2% 상승 비율이다. 이는 팬데믹 이전 2년동안의 매월 평균 상승세와 같은 비율이다.

WSJ 기사

Bloomberg: New York Manufacturing Activity Expands Though Outlook Sours**11월 뉴욕 제조활동 상승... 그러나 향후 지수는 감소 예상**

- 뉴욕연방은행의 11월 종합 비즈니스 여건 지수(제조업 분야)가 13.6 포인트 늘어난 4.5를 기록했다. 수치 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 확장을 의미하는데 당초 월가 예상치는 마이너스 8이었다.
- 이와 관련하여 선적, 고용, 재고 등이 늘어났고, 신규 주문과 아직 채워지지 않은 주문은 감소했다.
- 그러나 향후 6개월간의 뉴욕연방 활동지수는 4 포인트 떨어진 마이너스 6.1로 예상됐다. 주문과 선적 전망은 기록이 집계된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가 전망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Fed's Brainard Says Rate-Rise Pace Can Slow Soon**연준 부의장 Brainard, “금리 인상세 곧 둔화될 수 있다”**

- 12월 13~14일 회의에서 금리 0.5% 인상 예상
- 연준 부의장인 Lael Brainard는 다음달 회의에서 연준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이번주 월요일 말했다.
- 그는 연준이 다음달 13일부터 양일간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이 0.5%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 그는 “연준은 금리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연준의 올해 조치들이 어떻게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는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에는 연준 조치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왔는지 확인될 수 없었다는 말이다.

WSJ 기사

Bloomberg: Fed's Harker Sees Pace of Rate Hikes Slowing in Coming Months

필라 연준 총재도, “향후 수개월간 연준 금리 속도 둔화”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Patrick Harker 총재도 금융 정책이 충분한 제약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연준 관리들은 금리 상승 속도를 느리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계속 긴축 금리를 취해온 상황에서 향후 수개월간 금리 상승 속도가 줄수 있다는 것이다.
- 그가 희망하기를, 그동안의 금리 정책이 작동하는지 당분간 연준은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Bloomberg 기사

[미 중간 선거]

WSJ 오피니언 : The GOP's Lost Independents

중도층, 공화당 떠났다

- 공화당의 이번 중간선거 손실이 커지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는 다수석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공화당은 현재 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에서 이미 민주당이 50석을 차지했고, 한개 주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 전형적으로는 중도층 유권자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당(현재 민주당)에 반대표를 던진다.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다.
-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출구 조사를 해본 결과 자신을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무당파라는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49%, 공화당이 47% 득표율을 보였다.
- 이들 중도층은 미국의 방향에 대해 불만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화당에 권력을 줄 정도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특히 낙태 문제에 대해 공화당(낙태 반대)에 반대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공화당의 이와 관련한 정책을 2024년 대선에 대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지원을 받은 후보자(2020년 대선에 불법이라고 주장)는 성과가 좋지 못했다.

NYT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Roar as Traders Cheer Softer Inflation Data: Markets Wrap

도매물가 기대보다 둔화로 기술주가 주식 끌어올려

- 향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늦출 가능성을 보인, 이른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세 둔화 때문에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오늘 화요일 오후 1:11pm S&P 500는 1.2% 상승했으며 특히 나스닥 100은 2.11% 상승했다. 이들 지수 상승은 특히 기술주인 Apple Inc., Microsoft Corp., Amazon.com Inc를 비롯한 Walmart의 기대밖의 어닝 실적이 주도했다.
- 10년물 국채도 3.80%로 낮아졌으며 달러는 하락, 파운드화는 랠리를 보였다.
- 미 경제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예상외 하락과 오늘 화요일 발표된 도매물가지수의 하락 등으로 연준 관리들조차 금리 인상세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주식에 큰 호재인 셈이다.

Bloomberg 기사

[오일]

CNBC: Inflation expectations rebounded in October on record-high jump in gas outlook, NY Fed survey shows

미 10월 휘발유가 예상치 급등...인플레 우려 커졌다

- 연준의 월간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9%로, 9월보다 0.5%올라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한 달간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 응답자들은 향후 1년 동안 휘발유 가격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연방 노동 통계국은 10월 물가상승률이 0.4%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하지만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며 시장을 둔화시켰다. 주택 가격은 9월과 동일하게 2%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응답자들은 실업률, 가계 지출 증가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CNBC 기사

[부동산]

WSJ: Condos in Manhattan Luxury Building Sell Fast, Signaling Market Resilience**맨해튼 호화 콘도 빨리 팔린다...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

-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의 호화 콘도들이 재빠르게 매각되는 등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해당 빌딩의 콘도 28개중 24개가 몇 주만에 다 팔렸다.
- 그것도 대대적인 광고가 아닌, 단지 입소문(whisper campaign)으로 만. 팔린 콘도는 평균 3백50만불 또는 스퀘어당 3천달러로 다른 호화 콘도보다 약간 더 프리미엄이 붙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호화 콘도 평균 판매가는 스퀘어당 2천8백달러다.
- 위치가 좋고, 아파트가 수준이 높을수록 잘 팔린다는 것. 그런 류의 콘도는 수요가 건강한 편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WSJ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Biden-Xi Summit Sets Warmer Tone for Complex US-China Dialogue**어제 미중 정상 회담, 대화 자세는 괜찮아**

- 어제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의 대화가 갈등하는 양국간의 물꼬를 트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 바이든과 함께 싱가포르에 있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는 이번 모임이 전 세계에 '강력한 신호' (powerful signal)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 정책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 한마디로 지난 4년 양국 무역 전쟁의 해소할 변곡점과는 관련이 없고, 대신에 단지 향후 양국간의 새로운 가드레일을 세우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It was merely intended to set new guard rails for the relationship going forward.

Bloomberg 기사

WSJ: China's Economy Takes a Deeper Hit as Retail Sales Turn Negative**중국 소매판매 위축, 경제 타격 깊어**

- 지난달 중국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속되는 제로 팬데믹 봉쇄령, 어려운 부동산 시장, 수출 위축으로 인해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서 중국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와 수요는 약한 상태이다.

- 오늘 화요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제조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투자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5개월간 처음으로 중국 소매 매출이 예상 외로 위축되었다.
- 미 국내 소비의 바로미터가 되는 소매 판매는 10월의 수치가 작년 동월에 비해 0.5% 줄었다.
- 향후 12개월간 미국이 침체가 예상되고 글로벌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이같은 중국의 성장 둔화 데이터가 나온 것이다.
- 중국은 올해 성장이 5.5%로 예상되는 공식 수치를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들어 9개월간 경제 성장은 단지 3%를 기록했다.

WSJ 기사

Bloomberg: China Has Shot at Seizing 60% Share of Global EV Sales This Year

중국, 올해 전기차 글로벌 판매의 60% 점유

- 10월 전기차 판매가 기록을 깼다. 플러그인 승객 차량과 상업용 전기차가 총 72만2천대가 팔렸다.
- 전기 배터리용 차량은 승객용 차량 시장의 22%를 점유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9%를 점유했다.
- 중국의 글로벌 승객용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 2015년 26%에서 올해 상반기에 56%를 점했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엘런 美재무 "IRA, 우려 국가들에 긍정적인 측면도...설명하겠다"
- 연합: 블랙록 "연준, 금리 과도하게 올릴 것...증시 랠리 어렵다"
- 한경: 월마트, 3분기 매출 9% 급증, 월가 예상 웃돌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The Economist: The race to reinvent the car industry

자동차 산업 혁신 경쟁...테슬라 따라잡을 수 있나

- 오랫동안 전형적인 하드웨어 제조 산업으로 여겨졌던 자동차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데에 4년이 걸리고, 이전 모델과 차별점이 없는 새로운 모델을 내놓았던 과거와 달리, 새로운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자동차는 몇 년이 아니라 며칠, 때로는 몇 시간 단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제 자동차 브랜드는 기계적 우수성보다는 인공지능 운전 보조 장치나 안전 기능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의해 정의될 것이다.
- 테슬라, 니오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까운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선두로, 기성 자동차 업체들은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CSOS)를 앞다퉀 영입하며 자체 OSS를 개발하고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 조직적 과제 해결

- 이런 혁신 전쟁에 직면한 자동차 업체들은 먼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확실히 관리할 것인지,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소비자 접근을 쉽게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또 기존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기계 공학자들과 점차 주도권을 잡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 메르세데스 벤츠는 본사와 가까운 곳에 1천여 명의 프로그래머를 수용할 초 현대적 “전기 소프트웨어 허브”에 2억 유로를 투자해 부서 간 협업이 쉽도록 할 예정이다. BMW는 반도체 기업인 퀄컴과 협력, 르노는 구글 안드로이드와의 협업을 선택했다.

2) 수익 창출

- 자동차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을 만드는 데에 성공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BMW는 최근 한 달에 18달러로 열선 내장 시트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업 수익이 2030년 운송 시장의 2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업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결국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업계 전반의 디지털 기술, 조직 및 비즈니스 모델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Economist 기사

WSJ: Meta, Lyft, Salesforce and Other Tech Firms Dump Office Space as They Downsize

Meta, Lyft, Salesforce 등 미 테크 기업, 임대 사무실도 줄인다

- Facebook 소유주인 Meta Platforms Inc., Lyft Inc., Salesforce.com Inc. 등 수년간 미국 사무실 수요를 충당했던 대형 테크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밸리, 뉴욕, 오스틴, 텍사스 및 기타 지역에서 수백만 평방 피트의 사무실 공간을 줄이고 있다.

- 부동산 서비스 업체 CBRE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사업체의 임대료가 감소했지만 테크 기업의 비중 감소가 가장 컸다. 경기 침체 전망에 따라 기업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준비하면서 사무실 공간 임대도 취소하고 있는 것이다.
- 이같은 움직임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동력과 부동산 수요에 의존해온 사무실 시장과 지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021년 미국 사무실 임대의 20.5%가 테크 기업에 의한 것이었고, 현재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12.5%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한편 최근 테크 회사들은 고급 작업 공간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부동산 가치를 통제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WSJ 기사

Bloomberg: As Tech Industry Cuts Jobs, These Are Some of the Worst Ways to Get Fired **직원을 해고하는 최악의 방법**

- 다가오는 경기 침체 예상에 따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4백 40억 달러에 사들인 후 3천 7백명에 가까운 인원을 해고했고, 메타의 1만1천명 규모 인력 감축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해고는 직원들의 생산성과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 이후 상황이 나아졌을 때 다시 인재를 고용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 기사 원문에서 크리스마스 며칠 전 뉴욕과 뉴저지의 기술 직원 2천 7백명을 돌연 해고한 Verizon, 화재 경보기를 울려 고객들을 대피시킨 뒤 직원들을 모아 가게가 폐점할 것이라고 밝힌 Robbs 등 최악의 해고 사례들을 볼 수 있다.

Bloomberg기사

CNN Business: Home Depot customers are spending more, but that's mainly due to inflation **Home Depot 소비자 지출은 늘었지만...인플레 탓**

- 주택 수리 소매 체인인 Home Depot의 매출이 1년 전보다 거의 6% 증가하며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고객 거래 건수는 1년 전보다 4% 감소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 고객이 홈디포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10% 이상 더 많아진 것이다.
-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서 홈디포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전례 없던 인플레이션에도 홈디포에 대한 수요

가 어느 정도 유지되며 고객 탄력성이 입증되었지만,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 한편 홈디포의 주가는 주택 시장 둔화 우려로 올해 들어 25% 하락했으나 이번주 화요일 아침 2% 이상 올랐다.

CNN Business 기사

NYT: Amazon Is Said to Plan to Lay Off Thousands of Employees 아마존, 이번 주부터 1만 명 해고...역대 최대 규모

-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존이 이번 주부터 약 1만명을 해고할 계획이며, 이는 아마존 전체 직원의 약 3%를 차지하는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이라고 밝혔다.
- 소매업체에게 중요한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계획된 감축은 세계 경제의 약화가 기업들을 얼마나 압박했는지를 보여준다.
- 온/오프라인 소매 사업과 물류 사업을 아우르는 아마존의 소매 사업은 팬데믹 기간 수요가 급증하며 2년 만에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빠르게 투자를 확장했다. 그러나 이후 급속한 사업 확장으로 높은 비용에 직면했고, 소비자의 쇼핑 습관 변화와 인플레이션으로 매출이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YT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Fed 2인자도 금리 인상 '속도조절론' 지지

12월 0.5%P 올릴 듯

"누적된 긴축효과 나타날 것
개인소비지출도 둔화될 전망"
최근 연은 총재들 발언 거들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
기대인플레이션 더 높아져

미국 중앙은행(Fed)의 2인자로 통하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14일(현지 시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역 연방은행 총재를 중심으로 제기된 금리 속도 조절론이 Fed 이사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